
2023년 1/4분기
수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3. 1



■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수원] 요약

구 분	수 원			
	3/4실적	4/4전망	4/4실적	1/4전망
체 감 경 기	72	82	71	70
매 출 액	78	94	74	71
영 업 이 익	72	75	59	71
설 비 투 자	82	94	72	83
공급망 안정성	82	85	55	78
사업장 공장 가동	80	80	76	81

○ 수원지역 10인 이상 제조업체 85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4분기 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분기(82)보다 12포인트 하락한 70으로 집계되었다.

○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의 세부 항목을 보면 ‘매출액’ 78, ‘영업이익’ 71, ‘설비투자’ 83, ‘공급망

안정성’ 78, ‘사업장 공장 가동’ 81로 모든 항목이 기준치 ‘100’ 이하로 조사되었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 기업들의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8.6%,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2.4%,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8.9%로 조사되었다.

○ 올해 초 계획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37.1%가 ‘소폭 미달(10%이내)’, 21.0%가 ‘크게 미달’로 답해 절반이 넘는 58.1%의 기업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4.2%였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6.1%에 그쳤다.

○ ‘영업이익 달성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41.7%가 ‘소폭 미달(10%이내)’, 26.7%가 ‘크게 미달’로 답해 응답기업 3곳 중 2곳(68.4%)은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6.7%였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3.3%에 그쳤다.

1. 조사목적 및 활용방법

- 수원지역 기업체의 20다2년 4/4분기 경영 실적 및 2023년 1/4분기 경기 전망에 대한 체감 정도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수원지역 제조업 동향 및 전망치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조사기간

- 기초자료조사 : 2022. 12. 1 ~ 12. 14
-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 2022. 12. 15 ~ 12. 30
- 보고서 작성 : 2023. 1. 2 ~ 1. 5

3. 조사대상

- 수원지역 소재 10인 이상 제조업체 85개 업체 응답

4. 조사방법

- FAX 및 이메일 조사

1. 전반적 경기동향

[2022년 4/4분기 경영실적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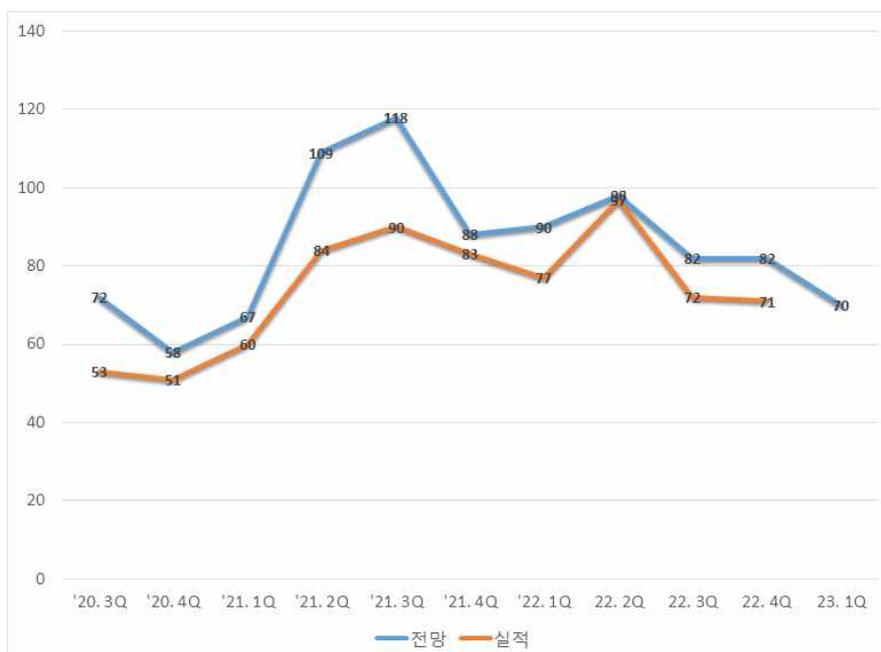
2022년 4/4 분기 기업의 경영실적은 ‘71’ 로 직전분기(‘72’)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주춤했던 하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70’, ‘부정적’]

수원지역 85개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BSI) 지수가 ‘70’ 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영향이 컸던 2020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 72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기전망에 대한 분위기가 부정적인 양상이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최근 3년간 수원지역 BSI(전망치) 추이>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공급망 안정성 등 모두 부정적]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의 세부항목을 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체감경기(70), 매출액(78), 영업이익(71), 설비투자(83), 공급망 안정성(78), 사업장·공장 가동(81)으로 항목 모두가 기준치 (100)미만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전망 : 부정적]

연초에 수립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7.1%가 ‘소폭 미달(10%이내)’, 21.0%가 ‘크게 미달’ 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8.1%의 기업이 올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 전망 : 부정적]

연초에 목표했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1.7%가 ‘소폭 미달(10%이내)’, 26.7%가 ‘크게 미달’ 로 응답기업 3곳 중 2곳(68.4%)은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했다.

[기업 경영 영향 : 원자재 가격]

기업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응답기업의 37.5%가 ‘원자재가격’, 30%가 ‘내수시장 경기’, 11.3%가 ‘고금리 상황’, 8.8%가 ‘고환율 상황’, 7.5%가 ‘수출시장 경기’ 순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 : 부정적]

기업들이 전망하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5 ~ 2.0%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현장의 체감여건이 더 나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1.0 ~ 1.5%’ 미만이 2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5% ~ 2.0%(24.6%)’, ‘0.5% ~ 1.0%(19.3%)’, ‘마이너스(12.3)’, ‘0.5미만(10.5%)’, ‘2.0 ~ 2.5%(3.5%) 순으로 응답하였다.

[매출/수출 전망 : 감소]

올해 매출과 수출 실적에 대해 작년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작년과 동일 수준’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아 가중평균값은 -1%대 역성장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매출 전망은 26.9%가 ‘작년과 동일 수준’ 으로 응답했지만 마이너스 구간이

37.7%, 플러스 구간이 35.9%로 가중평균값은 -1.035로 집계되었다.

수출 전망은 40.6%가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응답했지만 마이너스 구간이 31.8%, 플러스 구간이 27.5%로 가중평균값은 -1.16으로 집계되었다.

[투자 계획 : 보수적]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 작년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작년과 동일 수준’이라는 응답이 55.4%로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감소’라는 응답이 35.7%였다. 작년보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경제 리스크 : 高물가·원자재가 지속,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2023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리스크요인은 ‘高 물가·원자재가 지속’ (31.4%)였고, 다음으로는 ‘내수경기 침체’ (23.1%), ‘고금리 지속’ (15.7%). ‘원부자재 수급 불안’ (12.4%), ‘고환율 장기화’ (7.4%) 순이었다.

이러한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뒤야할 과제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2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 (24.6%),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 (17.8%),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11%),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 (9.3%), ‘공급망 안정화’ (8.5%) 순이었다.

<항목별 BSI(전망치) 동향>

구분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비고
체감경기	전망	90	98	82	82	70	
	실적	77	97	72	71		
매출액	전망	88	103	112	94	71	
	실적	76	109	78	74		
영업이익	전망	68	98	97	75	71	
	실적	66	86	72	59		
설비투자	전망	105	94	108	94	83	
	실적	88	89	82	72		
공급망 안정성	전망	85	77	98	85	78	
	실적	67	82	74	52		
사업장 공장 가동	전망	98	99	96	80	81	
	실적	85	85	82	76		

2. 세부 항목별 경기전망

가. 체감경기부문 실적/전망

- 2022년 4/4분기 체감 경기 부문에 대한 실적은 ‘71’로 22년 3/4분기 ‘72’보다 1포인트 하락하였다. 2022년 4분기 체감 경기가 “악화”라고 응답한 기업은 46.6%로 집계됐으며, 체감 경기가 “불면”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6.2%, “호전”된 것으로 본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
- 2023년 1/4분기 체감 경기 전망은 ‘70’로 2022년 4/4분기 ‘82’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들이 2023년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8.6%의 기업이 1분기 경기전망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불변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2.4%,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8.9%로 나타났다.

<체감경기 부문 전망>

체감경기	호 전	불 변	악 화	BSI지수
실 적 (4/4분기)	17.2%	36.2%	46.6%	71
전 망 (1/4분기)	18.9%	32.4%	48.6%	70

나. 매출부문 실적/전망

- 2022년 4/4분기 매출부문에 대한 실적은 ‘74’로 조사되었다. 직전 분기 실적인 ‘78’보다 4포인트 낮게 조사되었고 기준치 ‘100’ 이하로 매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 1/4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71’로 조사되어 전분기 전망치인 ‘94’보다 23포인트 낮게 집계되었고 2022년 3분기 이후 연속으로 하락하여 2023년 1/4분기 지역 기업 매출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부문 전망>

매출액	증 가	불 변	감 소	BSI지수
실 적 (4/4분기)	22.4%	29.3%	48.3%	74
전 망 (1/4분기)	22.4%	25.9%	51.7%	71

다. 영업이익 실적/전망

- 2022년 4/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은 ‘59’로 조사되었다. 직전 분기 실적(‘72’)에 비하여 13포인트 낮게 조사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1/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71’로 조사되어 직전 분기 기대치 ‘75’보다 4포인트 낮게 조사되어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다.

<영업이익 부문 전망>

영업이익	증가	불변	감소	BSI지수
실적 (4/4분기)	17.2%	24.1%	58.6%	59
전망 (1/4분기)	24.1%	22.4%	53.4%	71

라. 설비투자 실적/전망

- 2022년 4/4분기 설비투자 실적은 ‘72’로 전분기 실적(‘82’)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기준치 ‘100’보다 낮은 수치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1/4분기 설비투자 전망치는 ‘83’으로 조사되어 전분기 전망치인 ‘94’보다 11포인트 감소하여 기업들의 1분기 설비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부문 전망>

설비투자	증가	불변	감소	BSI지수
실적 (4/4분기)	12.1%	48.3%	39.7%	72
전망 (1/4분기)	19.0%	44.8%	36.2%	83

마. 공급망 안정성 실적/전망

- 2022년 4/4분기 실적은 ‘52’로 직전분기(‘74’)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치로 조사되어 기업들의 공급망이 아직 불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 1/4분기 전망은 ‘78’로 조사되어 직전분기(‘85’)보다 7포인트 감소하여 2023년 1분기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 기대치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안정성 전망>

공급망 안정성	호 전	불 변	악 화	BSI지수
실 적 (4/4분기)	3.4%	44.8%	51.7%	52
전 망 (1/4분기)	15.5%	46.6%	37.9%	78

바. 사업장·공장 가동 실적/전망

- 2022년 4/4분기 사업장·공장 가동 실적은 ‘76’으로 전분기 실적(‘82’)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되어 기업들의 사업장·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1/4분기 사업장·공장 가동 전망은 ‘81’로 전분기 실적(‘80’)과 비슷한 수치로 집계되었지만 기준치 ‘100’보다 낮은 수치로 기업들의 사업장·공장 가동 전망치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공장 가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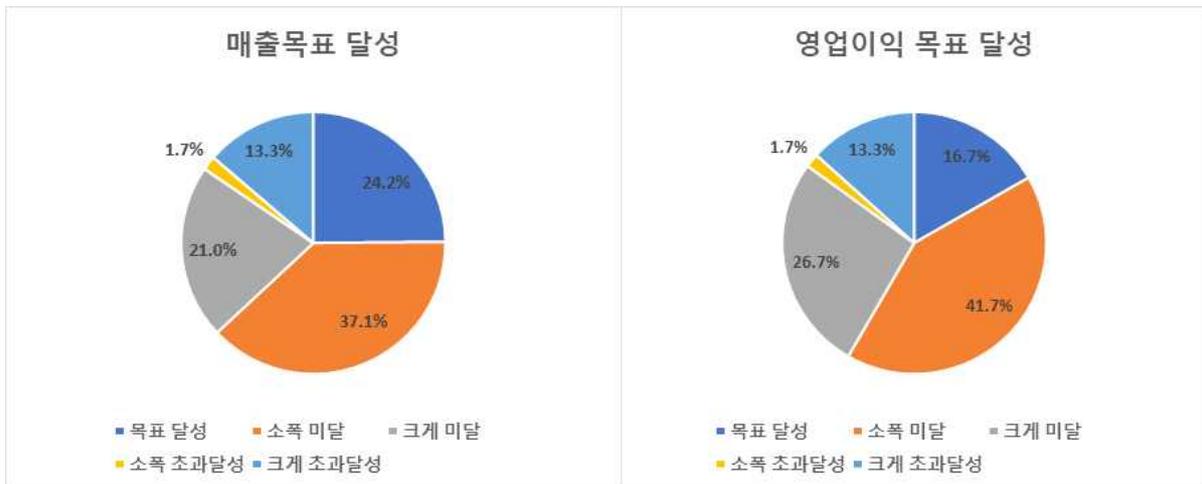
공급망 안정성	호 전	불 변	악 화	BSI지수
실 적 (4/4분기)	10.3%	55.2%	34.5%	76
전 망 (1/4분기)	22.4%	36.2%	41.4%	81

사. 올해 경영목표 달성 전망

- 올해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예상이 많았다. 연초에 수립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7.1%가 ‘소폭 미달(10% 이내)’, 21.0%가 ‘크게 미달’로 응답해 절반이 넘는 58.1%의 기업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4.2%였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6.1%에 그쳤다.

- 영업이익 전망도 밝지 않았다. 연초 목표한 ‘영업이익 달성 전망’ 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1.7%가 ‘소폭 미달(10% 이내)’ , 26.7%가 ‘크게 미달’ 로 응답하여 응답기업 3분의 2(68.4%)는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 ‘목표 달성’ 은 16.7%였으며, ‘초과달성’ 은 13.3%에 그쳤다.

<올해 경영목표 달성 전망>



아. 경영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

- 기업들의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외 요인을 묻는 조사에서는 ‘원자재 가격’ (3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내수시장 경기’ (30.0%), ‘고금리 상황’ (11.3%), ‘고환율 상황’ (8.8%)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 경제성장률 전망치

- 2023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묻는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이 1.0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1.0 ~ 1.5%’ 미만이 2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5% ~ 2.0%(24.6%)’, ‘0.5% ~ 1.0%(19.3%)’, ‘마이너스(12.3)’, ‘0.5미만(10.5%)’, ‘2.0 ~ 2.5%(3.5%) 순으로 응답하였다.

<2023년 경제성장률 응답결과>

구간 (%)	마이너스	0~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	가중평균
응답율	12.3%	10.5%	19.3%	29.8%	24.6%	3.5%	0.0%	0.0%	1.05%

<주요 기관들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구간 (%)	OECD	IMF	ADB	기재부	한국은행	KDI	구간
응답율	12.3%	10.5%	19.3%	29.8%	24.6%	3.5%	1.5~2.0%

차. 작년대비 매출/수출 전망

- 2023년 매출, 수출, 내수 전망을 작년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작년과 동일 수준'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아 가중평균값은 -1%대 역성장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매출 전망은 26.9%가 '작년과 동일 수준' 으로 응답했지만 마이너스 구간이 37.7%, 플러스 구간이 35.9%로 가중평균값은 -1.035로 집계되었다.
- 수출 전망은 40.6%가 '작년과 동일 수준' 으로 응답했지만 마이너스 구간이 31.8%, 플러스 구간이 27.5%로 가중평균값은 -1.16으로 집계되었다.
- 내수 전망은 33.1%가 '작년과 동일 수준' 으로 응답했지만 마이너스 구간이 45.5%, 플러스 구간이 27.3%로 가중평균값은 -4.465로 집계되었다.

<작년 대비 2023년 매출/수출/내수 전망>

구간 (%)	-30	-30~ -20	-20~ -10	-10~ 0	0	0~10	10~ 20	20~ 30	30~	가중 평균
매출전망	3.0%	4.5%	11.9%	17.9%	26.9%	22.4%	9.0%	3.0%	1.5%	-1.035
수출전망	2.9%	4.3%	8.7%	15.9%	40.6%	17.4%	5.8%	2.9%	1.4%	-1.16
내수전망	5.5%	10.9%	12.7%	16.4%	21.8%	18.2%	5.5%	3.6%	0%	-4.465

카. 작년대비 투자계획

- 2023년도 투자계획을 작년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작년과 동일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작년보다 감소’라는 응답이 35.7%로 전체적으로는 투자계획이 줄어든 것으로 작년보다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8.9%에 불과했다.

타.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 2023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高물가·원자재가 지속’이 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내수경기 침체(23.1%)’, ‘고금리 지속’(15.7%), ‘원부자재 수급 불안’(12.4%), ‘고환율 장기화’(7.4%) 순이었다.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	高물가·원자재가 지속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원부자재 수급 불안	고환율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둔화 장기화
응답율(%)	31.4%	23.1%	15.7%	12.4%	7.4%	5.0%	3.3%

- 이러한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뒤편할 과제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2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24.6%),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17.8%),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11%),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9.3%), ‘공급망 안정화’(8.5%) 순이었다.

<정부역점 과제>

리스크 요인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외환시장 안정	자금조달 시장 경색 완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	공급망 안정화	경제외교
응답율(%)	26.3%	24.6%	17.8%	11%	9.3%	8.5%	2.5%